

제29대 국교련 활동 사항 보고

1 제29대 국교련 제2차 회장단 회의 회의록

- 일 시: 2026년 5월 29일(금) 15:00 ~ 18:00
- 장 소: 서울대학교 60동 행정관 4층 대회의실
- 성원보고: 총 39개교 중 참석 22개교, 위임 3개교(배석 10명)
- 안전 토의 및 의결 사항

1. 서울대 총장과 간담회: 제2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30분간 간담회를 진행함

- 학생 공유와 시설 공유를 통한 공유대학, 융합대학을 지향해야함.
- 독일, 스웨덴 등 서구에서도 여러 대학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력 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들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함.
- 중국 대학의 재정 규모가 서울대의 2-3배 정도이며, 일본도 도후쿠 대학을 포함한 일본 대학에 큰 규모의 재정 투자를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요구됨.

1) 이용재 부산대 회장 질문: 국립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전환이 필요함. 교육부가 사업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이 파괴되고 있음.

- 유홍림 총장 답: 교육에서 큰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함. 10대가 AI를 가장 많이 사용함. 초·중등, 대학 및 평생교육을 하나의 틀로 보고 총체적인 교육 여건 마련이 필요함.

2) 박상식 경상대 회장 질문: 경상국립대의 항공우주학과와 서울대 간의 공동학위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대학에도 특화된 학과들이 있음.

- 유홍림 총장 답: 3년전부터 진행해오고 있고 인정제도까지 시행 중인데,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공동학위제를 안착시키는 단계로 가고 있음.

3) 조혜영 군산대 교수회장 질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고등교육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음. 교육부는 선택과 집중을 택함으로써 작은 대학들이 소외되고 있음. 작은 대학들이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 유홍림 총장 답: 정부가 대학의 최종 목표를 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함.

정부가 교육에 대한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예산 투자를 해야함. 국교련 등에서 정부에 건의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규모를 대폭 늘여야함. 국민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대학은 성과를 내야함.

- 4) 손영진 순천대 회장 제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임. 지역 국립대가 지역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정부에 국립대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해 주기 바람.

2. 안건 토의

가. 기초발표, 최인호 정책위원장

- 교연비 수당화를 위한 로드맵

나. 교연비, 교수수당 문제

- 회원교별 교연비 과세 현황 파악
- 교연비의 근로소득 과세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박종원 정책위원의 발언: 소득세의 과세를 다룰 것인지, 공무원연금 미산정을 다룰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향후 국립대학법의 입법 전략을 고민해야 함
- 정주백 충남대 법전 교수 자문: 교육공무원법상의 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대학별 교연비 지급액이 다른데, 같은 금액으로 만드는 것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전체 국교련 회원교의 교연비 지급 상황을 파악하고 국교련은 교연비의 수당화를 위한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함.
- 대다수 대학은 교연비를 연 수 회로 분할 지급하고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 20만원까지 기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경상국립대는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여 연 240만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음. 모든 대학이 교연비 중 240만원/년에 대한 비과세 적용할 수 있도록 국교련에서 표준화할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교수의 연금이 작다는 것을 알리고, 과세 표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교연비 문제는 국교련이 국교조와 함께 수당화를 위한 작업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준비함.

다.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준비

- 5개의 대표적인 국립대학법(안)으로 2017년 국교련(안), 2021년 국총협(안), 2021년 유기홍(안), 2023년 민형배(안), 2024년 국교련(안)이 있음.
-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정부가 원하는 국립대학법이 국교련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국립대학법의 국교련안 마련이 필요함.
- 국립대학법 제정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하는 것이 중요함.
- 국립대학법에 대학거버넌스 문제, 재정지원 문제 등이 담겨야함.

- 법안에 총추위의 투표 비율에 대한 합의안에 들어가면 좋겠음.
- 국교련 정책위원회에서 국립대학법에 포함될 내용을 좀 더 논의하기로 함.

라. 기타 안전

- 전차 회의록에 참석 인원 표기 방식을 총 O개교 중 O개교 참석으로 성원 확인이 수월하도록 수정
- 교수회장의 의전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함.
- 이용재 교수회장이 8월 14일 고고현철 교수 추도식 행사 개최 안내와 많은 참석을 요청함.

<제29대 국교련 제2차 회장단 회의 사진>

